

No.20170104-001

제목: 오카에리: 여행을 대신 해 드립니다!

저자: 하라다 마하

페이지수: 349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09월 19일



<내용소개>

여행 대리인 '오카에리'와 함께,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다양한 여행을 떠나보자

여행은 항상 설렌다. 낯선 장소의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현실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기회가 쉴 새 없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 소설의 주인공 '오카 에리카'다. '오카에리'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에리카는 오다이바의 한 방송국이 제작하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방영되는 일본 각지의 명소와 음식 소개 프로그램의 리포터다. 홋카이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동네에서 발탁되어 아이돌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잠시 인기를 누린 뒤로는 계속 하락세, 32세인 지금은 여행 프로그램이 유일한 일자리다. 성공하기 전에 고향에 돌아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계속 버티고 있는데, 협찬 업체 제품을 라이벌 업체 제품으로 잘못 홍보하는 큰 실수를 범한 탓에 아예 그 여행 프로그램이 폐지되어버리고 만다.

막막한 실업자 오카에리에게 어느 날 중년 여성이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한다. 그녀의 딸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삶의 의지와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딸을 위해, 병을 앓기 전 가족여행으로 갔던 아키타 현의 카쿠노다테에서 아름다운 벚꽃 사진을 찍어와 달라고 말한다. 그 때는 비가 많이 내려 벚꽃이 엉망이었고 아버지가 화를 내는 바람에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이다. 사연을 들은 오카에리는 흔쾌히 수락한다. 계속 마음에 걸리다던 여행의 기억을 다시 만들어주고 소원해진 부녀 사이도 화해시켜주겠다고 다짐하며 떠난다. 첫 대리여행은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오히려 더 좋은 풍경을 만들어주고, 결국 목표를 이룬다. 이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리여행 일을 시작한 주인공에게는 꾸준히 의뢰가 들어온다. 마침내 20번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다. 오카에리가 큰 실수를 했던, 여행 프로그램을 폐지시킨 것과 다름 없는 협찬 회사의 회장이 고객으로 찾아온 것. 요청사항을 성공시키면 프로그램을 부활시켜주겠다는 말에 전의를 불태우며 의뢰를 받아들이지만, 여기에 수상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주인공이 주어진 일을 무사히 끝마치고 다시 프로그램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제까지와는 다른 긴박한 여정이 펼쳐진다.

예술작품을 둘러싼 아트 미스터리로 각광 받아온 '하라다 마하'가 선보인 색다른 소재의 작품이

다. 타인 대신 여행을 떠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있다면 정말 재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웃음과 눈물, 경쾌함과 감동이 조화를 이뤄 따뜻한 여운을 안겨주는 소설이다.

<저자소개>

하라다 마하

1962 년 도쿄 고다이라시에서 태어났다. 간사이가쿠인대학 문학부 일본문학과 및 와세다대학 제 2 문학부 미술사과를 졸업하였다. 마리무라 미술관, 이토추 상사를 거쳐 모리빌딩 모리 미술관 설립 준비실에 있을 때, 뉴욕 근대미술관에 파견되어 동 관에서 근무하였다. 2005 년 <카후를 기다리며>로 제 1 회 일본러브스토리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하였다. 2012 년에 발표한 아트 미스터리 《낙원의 캔버스》는 제 25 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 제 5 회 R-40 서점 대상, TBS <왕의 브런치>BOOK 어워즈를 수상하는 등 화제를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No.20170104-002

제목: 고양이에는 추리가 잘 어울린다

저자: 미키 아키코

페이지수: 30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02일



<내용소개>

인간의 말을 하는 고양이 X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콤비가 사건을 해결한다

작가 '미키 아키코'는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60세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이색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꽤 늦게 소설가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작품마다 상을 받고 유력 수상 후보 명단에 오르는 등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는 번역 출간된 책이 없지만, 계속해서 눈 여겨 봐야 할 미스터리 작가 중 한 명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와 법률사무소 직원이 콤비를 이뤄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판타지 설정에 기초한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고양이가 등장한다고 해서 가볍고 유치한 내용은 아니며, 강렬한 색상의 표지와 어울리는本格 미스터리 작품이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카오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 곳은 바깥 세상과는 격리된 것처럼 매우 한적하고 평화로운 20평 사무실에는 타누마 변호사, 카오리, 그리고 말하는 고양이 '스코티'가 있다. 카오리는 변호사에게 들어온 의뢰를 엿듣고 스코티와 뒷얘기에 열중하기도 한다. 어느 날, 사랑스럽고 고상하며 살짝 제멋대로인 고양이 스코티가 추리 대결을 걸어온다. "만약 지금 타누마 변호사가 살해당하고 금고 안에 있던 물건이 도둑맞는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금고에는 5캐럿의 다이아, 자산가의 유언장, 실종된 사람의 사과 편지, 12통의 부도어음이 보관되어 있다. 어딘가 수상했던 의뢰인들을 용의자 선상에 올려두고 이리저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던 중,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실제 사건이 되어 벌어지고 만다.

중반까지는 카오리&스코티를 중심으로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불륜 문제, 유산 상속, 횡령 사건 등의 소재가 속속 나타나며 관계된 캐릭터들에게 현실감을 부여해주고 독자들의 입에서 한숨이 뚝뚝 나오도록 한다. 후반부에는 작가 미키 아키코가 사랑해 마지 않는 캐릭터, 매 작품에 등장하는 변호사 '무츠키 레이'가 나타나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며 숨겨져 있던 사실을 하나 둘 수면 위로 밝혀낸다. 현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는 누구일까? 말하는 고양이 스코티는 카오리 이외의 사람에게도 실재하는 존재일까? 대체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 의문들이 끝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야기 속에서 방심하는 순간 허를 찌르는 반전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다소 묵직한 이야기 속에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설령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미스터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작품이다.

<목차소개>

고양이의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고양이 밀실”

제 1부

(사무소 고양이 스코티 / 의뢰인 광란곡 / 일어나야 할 사건 / 현실의 사건)

제 2부

(사건 이후 / 안녕 스코티)

에필로그

<저자소개>

미키 아키코

1947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이전 직업은 변호사. 60 세부터 집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0 년에 《귀축의 집》으로 시마다 소지 선정 제 3 회 장미 마을 후쿠야마 미스터리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두 번째 작품 《키시라기기의 일족》과 세 번째 작품 《나선의 바닥》으로 제 13 회·제 14 회 본격 미스터리 대상에 2 년 연속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였다. 기타 작품으로는 《살의의 구도》, 《패자의 고백》, 《교환살인은 언제? 할아버지와 주라이와 미스터리》, 《미네르바의 복수》 등이 있다. 매년 발표하는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에 5 년 연속 20 위 안에 랭크 되었다.

No.20170104-003

제목: 돈이 모이는 가계 관리의 비밀

저자: 하야시 아츠무

페이지수: 19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6월 27일



<내용소개>

다양한 형태의 모델 케이스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가계 관리 비결을 제시하는 책

대부분의 성인 남녀는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가계 비용도 스스로 관리하게 된다. 부모 슬하에서 자기가 자신의 돈을 관리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따른다. 부부는 물론 장래 태어날 자녀들의 인생까지 이 '가계 관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서 쓸모 없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돈이 점점 더 들어가는데, 예상되는 수준의 수입으로 바라는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다. 시중에 '가계 비용 관리'와 관련된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누군가 정답이나 대책을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는 기업 컨설팅 및 관리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저자가, 기업 운영과 가계 관리의 공통점에서 찾아낸 '가계 흑자 시스템' 비결을 공개한다.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신과 가족에게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독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케이스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책들과 차별화 하였다. 성인 2인 가정, 외벌이 가정, 외벌이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외벌이에 초등학생 고학년 남자아이가 있는 가정, 맞벌이에 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 등 매 항목마다 적절한 상황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가계 관리의 목적을 알고 가계의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 '흑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전체 자산 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1년 단위로 가계의 예산을 잡고, 공유 계좌/ 정기예금 계좌/ 대출 및 월세를 위한 지출전용 계좌1/ 생활비와 보험료 등을 위한 지출전용 계좌2 등 목적 별 계좌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먼 미래의 비전을 세워두면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할지 자연히 방향이 보인다.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그리면 큰 단위의 지출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향후 일정한 수입이 예측되는 젊은 20대, 30대에게 특히나 유용할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글자 크

기가 크고 만화풍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도표와 그래프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비용 규모나 효과를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가계관리의 목적이란 - <가계>를 관리하면 <가정>도 관리할 수 있다

제 2장: 가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의 의미 - <돈부리 감정(갖고 있는 돈을 그 때 그 때 마음대로 쓰는 일)>에서 빠져 나오자

제 3장: <가계를 흑자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 준비 -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알아두자

제 4장: <가계를 흑자로 하는 시스템>의 구축방법 - 시스템이 움직이면 가계부는 필요 없다

제 5장: 미래를 향한 가계 관리 - 인생 설계도를 그린다

제 6장: 돈에 속박되지 않는 인생을 - 돈의 가치를 알면 가족도 행복하게

<저자소개>

하야시 아츠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LEC 회계대학원 교수(관리회계사례), 일본원가계산학회회원, 주식회사 하야시 아츠무 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

No.20170104-004

제목: 오전 5시 기상 이 자연스레 습관이 되는 "5시간 쾌면"

저자: 츠보타 사토루

페이지수: 192

장르: 건강

출간일: 2016년 12월 09일



<내용소개>

좋은 생활 흐름을 만들어주는 5시간 쾌면

현대인 대부분이 호소하는 만성 피로와 수면부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모처럼 시간이 많은 날 늦게 일어나거나 몰아서 잠을 청해도 시원하게 풀리지는커녕 더 힘들어질 것이다. 자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아침잠이 너무 많다, 밤에 정신이 또렷해지는 야행성 인간이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여유로운 매일을 보내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가진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쾌면 방법을 소개한다.

"적절한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 시간을 채우지 못해 다음 날 힘들어한다. 정말 5시간만 자도 괜찮을까?" 라거나, "그 정도로 줄이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물론 수면의 질이 시간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덜 잤다고 오후 내내 피곤과 졸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다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면전문의로 저자가 제안하는 신체에서 요구하는 수면 시간 자체를 줄이는 의학적 방법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고덕여질 것이다.

이 책은 짧고 깊게 숙면을 취하듯, 간결하게 그러나 실용성과 핵심은 놓치지 않고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총 4단계로 내용을 나누어 하나씩 짚어 나간다. 1단계~3단계는 '5시간 쾌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4단계는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단시간에 뇌도 몸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산뜻하게 눈을 떠 종일 피로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강철체력의 길로 인도한다. 당연히 집중력도 높아지고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5시간 쾌면"의 1단계는 바로 잠들고 바로 일어나기를 통해 실제 잠들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수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수면 진입 시간을 단축하는 7가지 방법과 상쾌하게 눈뜨는 4가지 비결을 제시한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통해 뇌와 신체감각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3단계는 낮잠·선잠으로 피로를 줄이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시간을 쪼개서 자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수 초, 1분, 10분, 20분, 90분 단위의 수면 중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을 실천해 보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앞선 내용을 응용해 '오전 5시 기상'습관을 익히는 과정을 소개한다.

인간은 평생의 1/3 가량을 잠들어 있다고 한다. 무엇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대인은 그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해 적정 수면시간 자체를 줄이고, 밤에도 아침에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인간은 정말 <수면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STEP1: '바로 잠들고 바로 일어나기' 기술로 수면효율을 높인다

STEP2: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뇌와 신체를 극적으로 회복시킨다

STEP3: 5가지 '낮잠'으로, 종일 피로를 모르는 몸을 만든다

STEP4: 2개월만에 <오전 5시 기상>을 습관화 한다

<저자소개>

츠보타 사토루

일본 수면학회 소속 의사, 의학박사. 아마하라시 클리닉 부원장. 수면전문의로서 20 년 이상 일해왔다. 일본수면학회 외에 일본 스포츠정신의학회, 일본 의사회, 일본 코치 협회에도 소속되어 있다. 헬스케어 코칭 연구회 대표 간사도 맡고 있다.

1963 년생. 일본을 수면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의 지도 및 보급에 힘써왔다. 2006 년에 생애학습개발재단 인정 코치 자격을 취득하고 <수면 코칭>을 창시했다. 2007 년부터 생활 종합 정보 사이트 <All About>의 수면가이드로서 인터넷에서 수면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 《뇌도 몸도 차분해지는 1 분 낮잠》, 《쾌면★상쾌하게 눈뜨는 습관》, 《능력이 5 배 업 되는 수면법》, 《전문의가 가르쳐주는 매일 꼭 자는 5 가지 습관》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104-005

제목: 쇼팽 콩쿠르 탐험기

저자: 아오야기 이즈미코

페이지수: 262

장르: 음악

출간일: 2016년 09월 16일



<내용소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꿈꾸는 최고의 무대 '쇼팽 콩쿠르' 2015년 대회 of 생생한 기록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하 '쇼팽 콩쿠르')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2015년에 열린 제17회 대회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에 당시 문화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깜짝 놀라며 22세의 어린 피아니스트에게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 책은 일본의 현역 피아니스트이자 문필가인 '아오야기 이즈미코'가 바로 그 대회, 2015년도 쇼팽 콩쿠르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기록한 글이다. 대중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콩쿠르의 역사에서부터 각 단계의 경합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1919년 창설된 쇼팽 콩쿠르는 퀴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벨기에),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힌다. 5년에 한 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며 오직 쇼팽의 곡으로만 실력을 겨룬다. 일자 또한 쇼팽의 기일인 10월 17일 즈음이다. 수준에 부합하는 참가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우승자를 뽑지 않는 엄격함을 고수하며, 여러 거장과 스타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해낸 꿈의 무대다. 매년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무대에서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2015년도 대회의 예비 심사는 필수 요구 서류와 더불어 DVD영상 심사도 이뤄졌다. 총 지원자는 445명. 총 8명의 심사위원이 2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각자의 녹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은 예비 심사를 가장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제 1차 예선부터 그랜드파이널까지는 2015년 10월에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자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콩쿠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예선 단계에서부터 인상적이었던 피아니스트들의 등장과 개성 있는 연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심사위원들이 직접 말한 내용이나 그들의 특징을 나열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지난 쇼팽 콩쿠르의 리포트를 통해, 저자는 예술의 잣대를 논하고 이후 일본인 우승자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한다. 사실 저자는 대회 직후 조성진이 오직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우승을 목표로 했다는 황당한 비난 발언을 했다가 정정 및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랜드 파이널을 다룬 부분에 적힌 조성진에 관한 찬사를 읽노라면 당시의 해프닝이 떠

오르며 더욱 흐뭇해질 것이다.

예술에는 100%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자의 주관은 완벽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콩쿠르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매력이 된다. 쇼팽 콩쿠르의 여정을 간접체험 하고 싶은 클래식 팬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2015년의 예비심사
- 제 2장: 쇼팽 콩쿠르의 역사
- 제 3장: 제 1차 예선(2015년 본 대회)
- 제 4장: 제 2차·제 3차 예선(2015년 본 대회)
- 제 5장: 그랜드 파이널(2015년 본 대회)
- 제 6장: 지도자들의 콩쿠르
- 제 7장: 콩쿠르의 상대성
- 종 장: 콩쿠르의 미래, 일본의 미래

<저자소개>

아오야기 이즈미코

피아니스트 겸 문필가. 야스카와 카즈코, Pierre Barbizet 에게 사사하였으며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학술박사). 헤이세이(平成) 원년도 문화청 예술제 상을 수상하였다. 오사카 음악대학 교수, 일본 쇼팽협회 이사. 저서로는 《날개 달린 손가락 평전 야스카와 카즈코》(요시다 히데카즈 상), 《아오야기 미즈호의 생애》(일본 에세이스트 클럽 상), 《여섯 손가락의 골드베르크》(고단샤 에세이 상) 등이 있다.

No.20170104-006

제목: 플레이매니저의 전략 노트 기술: 관리직이 된 당신을 위한 친절한 업무 가이드북

저자: 타지마 유미코

페이지수: 16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0월 07일



<내용소개>

평범한 사무실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선수에서 매니저로 올라서는 비법

일반 사원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면 처음 겪는 상황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부장으로 예를 들면,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는 전과 동일한데 참석해야 할 회의가 늘어나고 팀원들의 진척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새롭게 익혀야 할 업무가 생겨난다. 할 일은 산처럼 쌓였지만 시간은 모자라고, 부하들의 고민 상담에도 응해야 하니 말 못할 스트레스만 늘어간다.

본래 '플레이매니저'는 야구에서 플레이어 겸 매니저, 즉 선수 겸 감독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비즈니스에서도 쓰인다. 플레이매니저는 아랫사람을 키우고 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목표 실적도 달성해야 하는 복잡한 직무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성격의 업무를 짚어준 플레이매니저에게 노트와 수첩, A4용지, 화이트보드 등 어느 사무실에나 있을 법한 사무용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선 1장에서는 도구의 사용 방법을 바꾸는 것이 업무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플레이어(사원) vs. 매니저로 비교하며 설명한다. 사원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매니저는 팀 전원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사원은 효율을 중시하지만 매니저는 효과를 중시하며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2장은 수첩을 업무의 사령탑으로 삼아,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병행하며 스케줄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부하의 스케줄도 수첩에 적어두고, '해야 할 일'이 아닌 '말길 일'을 리스트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3장은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메모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숫자의 이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스토리를 발견해 부하에게 전하고, 고민 상담에 응할 때에는 서기로 변신해 적어두자. 예정 행동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두는 아날로그 행동이 이야기할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4장은 매니저의 업무를 도와줄, 자기자신을 위한 노트 기술이다. To do 리스트를 만들거나 분노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본문 곳곳에는 실제 노트 및 메모 자료를 이미지로 삽입해두었으며, 위클리 수첩·연간 이벤트 메모·멀티태스크를 관리용 5주 캘린더 템플릿이 부록으로 실려 참고할 수 있다.

우수한 사원에서 매니저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업무 기술을 요약하고 정리한 책이다. 메모와 노트 기술이 별 것 아닌 일처럼 보이겠지만, 낙숫물이 뿔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사소한 습관을 매일 행하면 나중에는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법이다. 끝없는 업무에 고민하고 있는 플레잉매니저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실용적인 조언을 줄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노트, 수첩, 화이트보드 etc. <아탈로그>로 플레잉 매니저의 업무에 혁명이 일어난다!

제 1장: 툴(Tool)의 사용 방법을 바꾸면 업무 방식이 바뀐다

제 2장: 수첩을 일의 <사령탑>으로 삼는다

제 3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메모 기술

제 4장: 바쁜 매니저를 도와줄, 자신을 위한 노트 기술

권말부록: 플레잉매니저의 업무가 변한다

<저자소개>

타지마 유미코

브라만테(Bramante)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본인재 매니지먼트협회 회원.

세이케이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IT 업계 전문 전시회 주최 회사 등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1999 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일본법인으로 이직하였다. 약 8 년간 재직 하며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등 Windows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였다. 당시 영업 마케팅 부문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영업부장이었으며 사원 및 부장으로 일했던 영업 그룹에서 프레지던트 어워드를 2 회 수상하였다. 2007 년 커리어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브라만테(Bramant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커리어 어드바이저로서 <젊은 층의 일하는 방식>, <중간관리자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여성활동지원> 3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사원연수, 강연, 공개 세미나, 대학강의, 집필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일본생산성본부 <워킹우먼 파워업 회의>가 주최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대상(현: 여성활약 파워업 대상)> 시작 시에 추진위원을 맡았다. 《플레잉매니저의 교과서》, 《여성사원 매니지먼트의 교과서》, 《워크라이프 불균형의 업무 능력》, 《일하는 여성 28 세부터의 업무 룰》, 《열심히 하는데 보답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읽는 책》 등의 저서가 있다.

No.20170104-007

제목: 꿈을 이루는 디자인 주택 짓기

저자: 카네츠크 마사야

페이지수: 146

장르: 건축

출간일: 2016년 06월 09일



<내용소개>

일본 주문주택 수주 순위 NO.1에 빛나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수장의 '집 짓기' 이야기

한때 도시 주택의 상징은 '아파트'였다. 정부 기관이나 건설사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지어 올린 비슷비슷한 모양의 집들은 곧잘 답답한 성냥 껍으로 비유되었다. 요즘에는 집의 종류가 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는 추세다. 시골 땅이나 도시의 자투리 땅을 사들여 땅콩주택, 협소주택, 테라스 하우스, 한옥 주택 등 정말 원하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개인이 늘고 있다. 디자인 주택이란, 건축 의뢰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건축가와 같이 만드는 집을 총칭한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실용성을 겸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 실현하는 것이다. 문외한인 건축주가 독학으로 지식을 익혀 실행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건축가 '카네츠크 마사야'는 다수의 건축사무소를 거쳐 젊은 나이에 'FREEDOM'이라는 주택 설계사무소를 세웠다. 능력 있는 건축가이자 22년 연속 매출 향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뛰어난 경영자다. 그는 건축가들이 마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듯 의뢰인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집들을 내놓는 상황에 위화감을 느끼고, 설계자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고자 창업을 결심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집 짓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고객들이 바라는 가치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디자인 주택으로 형상화하며 걸어온 21년이 이 한 권의 책에 압축되었다. 이전의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과제들, 실무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온 방법과 사례들이 담겨 있다.

1장에서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받은 질문을 Q&A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의뢰해서 받은 도면에 설레지 않는다, 건축회사 담당자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 숨씨 좋은 설계사무소지만 재료나 공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등 보통 사람들이 가질 법한 의문들이다. 2,3장에서는 앞선 상담 사례들의 근원을 파헤친다. 요즘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설하고 있다. 4장~7장은 FREEDOM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설계자가 지켜야 하는 자세와 가치관, FREEDOM이 만든 실제 주택 사진과 도면, 이제까지의 업적과 앞으로의 목표 등을 상세하고 진지하게 풀어냈다.

집을 지을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언만을 전해주는 파트너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저자는 건축 회사나 설계사무소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고객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부터 설계사 육성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 집 짓기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1. 질문!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 요즘의 집 짓기, 어딘가 이상하다
2. 땅 찾기의 현 상황 - 좋은 땅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3. 집 짓기의 현 상황 - 회사 사정에 맞춰 집을 지어도 괜찮을까
4. FREEDOM이 목표로 해 온 것 - 설계자의 가능성을 믿으며
5. FREEDOM이 만든 주택 -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을 형상화하는 디자인 주택(실제 사례, 사진, 배치도 포함)
6. 21년의 걸음과 미래 - 주택전문, 열린 설계 사무소로서
7.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 지금 FREEDOM이 목표로 하는 것

<저자소개>

카네츠크 마사야

1971 년 효고 현에서 태어났다. 1995 년에 개인 건축 사무소 FREEDOM 설계를 설립하였다. 주문 주택 수주 건수 전국 No.1 이며 서적 <키 만한 비용으로 디자인 주택을 세운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배치를 해내기까지>를 간행했다. 잡지 <괴테>에서 <카네츠크 마사야의 주택 수다장!>을 연재 중이다.

No.20170104-008

제목: 위기를 극복하는 사죄의 기술

저자: 타케나카 이사오

페이지수: 200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11월 03일



<내용소개>

일본 최고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갈고 닦은 “위기를 극복하는 사죄 기술”을 전수한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제대로 된 사과는 잘못과 실패를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어쨌든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인들이 괴로워진다. 요즘 진행되는 청문회만 봐도, 모든 정황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다.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다 보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면에서 엄청난 전문가다. 일본의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인 '요시모토흥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소속 개그맨·탤런트들이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그에 대한 기자회견, 사과, 위기관리를 담당했다. 병, 입원, 싸움, 이혼, 도촬, 폭행, 반사회적인 세력과의 교류, 식중독, 사망, SNS를 통한 실수, 남녀간 치정 문제 등등 이를 데 없이 광범위하다. 마이너스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관계자들 및 대중에게 이해를 부탁하는 원활하고도 정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였다. 자기자신을 “사죄 마스터”라 부를 정도다. 실천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기술을 살려, 비상 시에 피해자의 분노를 거둬들이는 대책과 기자회견의 절차 및 평소의 위기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한다.

1부는 사죄의 의미, 사과의 성공률을 높이는 기본 프로세스, 사과의 목표 설정하기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해 측의 사과는 피해자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는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다. 2부는 사죄를 하기 전 준비단계를 설명한다. 사실 관계를 정리해 파악하고 사죄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3부는 사과 실천 편으로, 직접 사과를 하러 가는 것과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기자회견 준비와 진행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아예 사과를 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전한다. 업무 상에서는 물론 생활에서 위기 상황을 줄이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남의 일처럼 대하기

쉽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다루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 부: 사과란 무엇인가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 / 사과를 성공으로 이끄는 6 가지 스텝 / 사과의 〈목표〉를 설정한다)

제 2 부: 사과의 준비

(특별 팀 소집! / 사실관계 정리와 파악 / 〈사과 시나리오〉를 쓴다

제 3 부: 사과하다

(직접 사과에 나서다 / 보도자료를 낸다 / 사과회견 준비 / 사과회견 본방)

제 4 부: 평상시의 준비

(중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 컴플라이언스 연수 실시 / 굿 커뮤니케이션)

<저자소개>

타케나카 이사오

주식회사 '모던 보이즈'의 COO. 1959 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도시샤대학 법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종합정책과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요시모토흥업 주식회사 입사 후, 광고홍보실을 설립하고 월간지 《먼슬리 요시모토》 초대편집장으로 근무했다. 개그맨 양성학교와 요시모토 종합 예능학원(요시모토 NSC)의 개교, 프로듀서로서 신사이바시즈지 2 초메 극장, 난바크랜드 카게츠, 요시모토 ∞홀 등의 개장을 맡았다. 오키나와 영화 《나비의 사랑》, 홍콩영화 《무간도》의 제작, 카와치야 키쿠스이마루의 매니저로서 이라크 바그다드·러시아 모스크바·북한 평양 공연 등을 프로듀서 하였다. 이후 〈요시모토흥업 백년사 편집실〉, 〈창업 100 주년 프로젝트〉 등을 담당하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위원회, 요시모토 크라에이티브 에이전시 전무 이사, 요시모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대표이사 등을 거쳐 2015 년 7 월에 퇴사하였다. 저서로는 《웃기고 싶은 세이쵸 요시모토 하야시 쇼노스케 전》이 있다.

No.20170104-009

제목: 아기 토끼 쿠와 숲 속의 인형

저자: 미야니시 타츠야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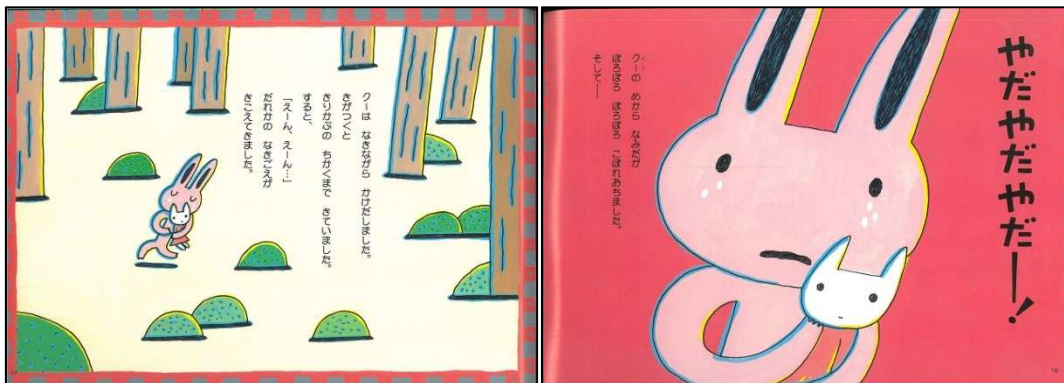
<내용소개>

숲에서 주운 귀여운 인형. 내가 가져도 될까?

어느 날 쿠는 숲 속에 귀여운 인형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인형일까? 내가 잠깐 빌려가도 되겠지?" 쿠는 인형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묻자 "잠깐 빌려왔어"라고 얼버무리며 대답했지요. 쿠는 인형이 마음에 들어, 같이 소꿉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잠 잘 때도 같이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인형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어느새 인형에 정이 든 쿠는 눈물을 흘리며 숲 속으로 뛰어갑니다. 한참을 울던 쿠는 누군가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쿠가 인형을 주웠던 자리에서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인형을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쿠는 슬프지만 인형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아기 돼지를 위해 인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쿠가 인형을 놓았던 자리에 가보니,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작은 꽃화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물건이 아니어도 마음에 들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숲에서 주운 인형이 너무 좋지만 인형을 찾으며 울고 있는 인형의 주인인 돼지 친구를 외면할 수 없는 쿠의 마음을 잘 그려내며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미야니시 타츠야

1956 년, 시즈오카현 출생. 일본대학 예술학부 미술학과 졸업. '신기한 캔디가게'로 제 13 회 일본그림책상 독자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으로는 '너 맛있어 보인다', '오늘은 어쩐지 운이 좋을 것 같아', '이상한 사탕가게', '엄마가 정말 좋아요' 등 다수가 있다.

No.20170104-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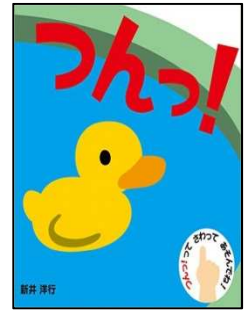
제목: 콕! 콕!

저자: 아라이 히로유키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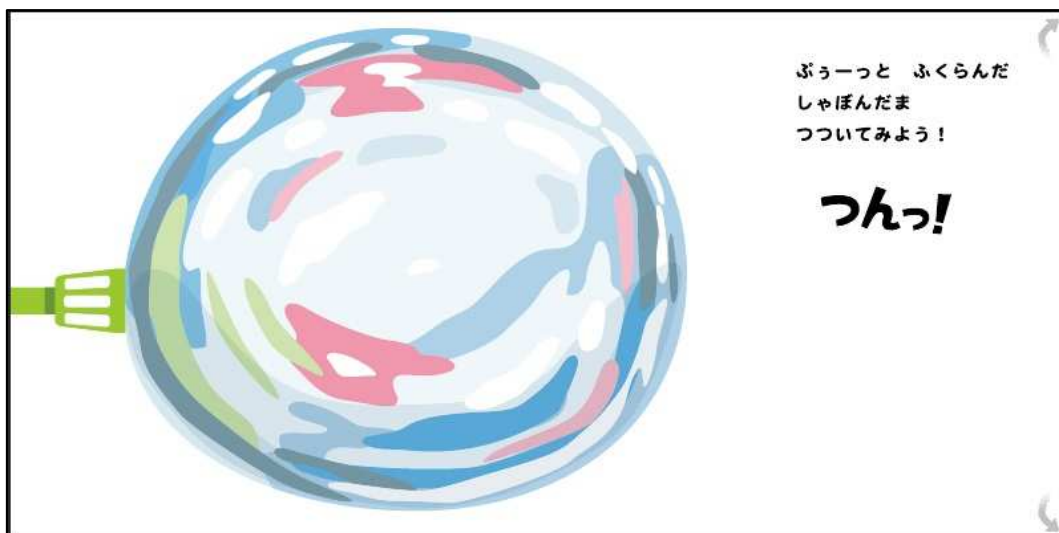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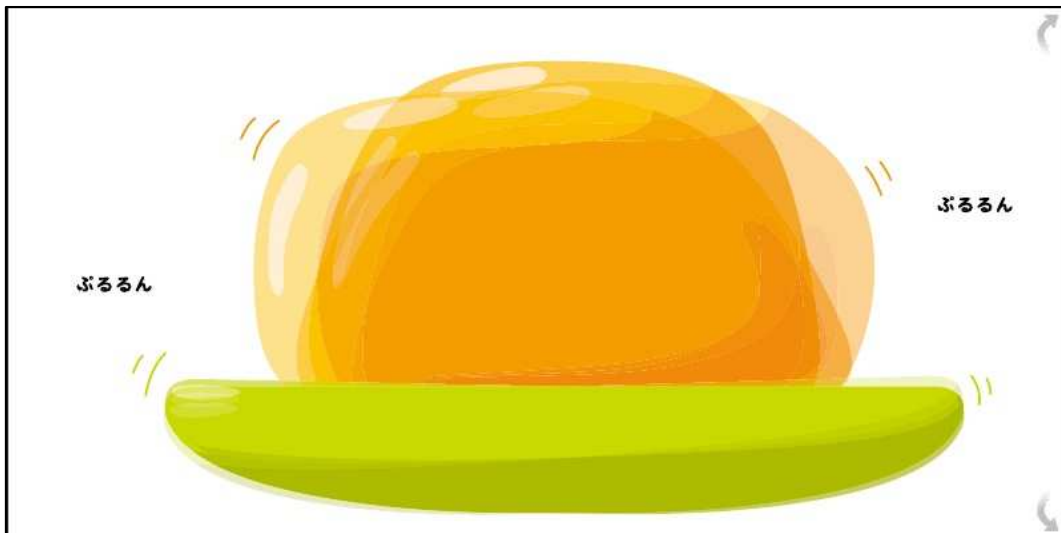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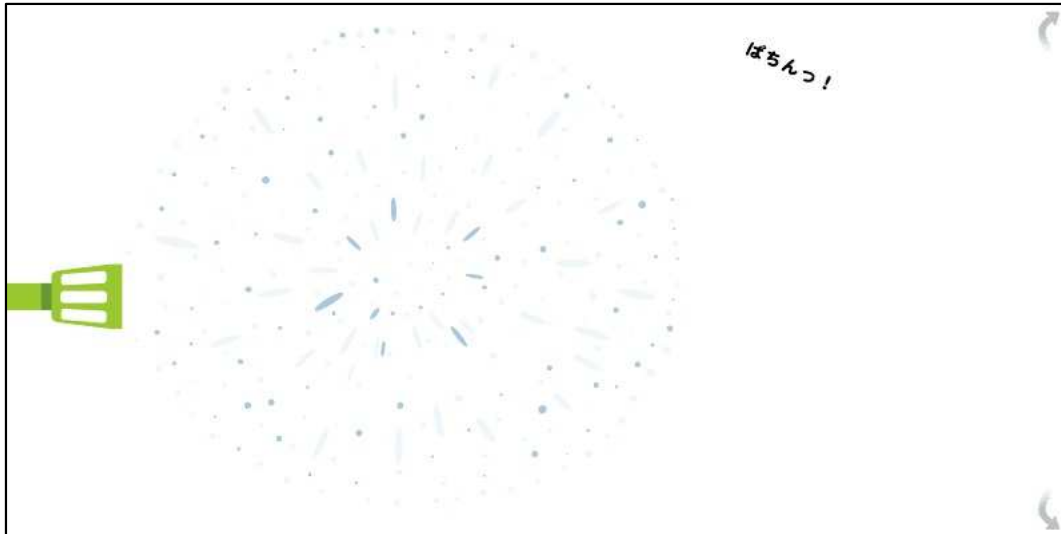
“콕!” 하고 찢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둥둥 고무 대야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고무 오리인형을 “콕!” 하고 찢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흔들 흔들 고무 오리가 움직이면서 대야 안에 물도 찰랑찰랑 흔들리네요. 흔들 흔들 흔들리는 블록으로 만든 탑을 “콕!” 하고 찢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르르르! 블록으로 만든 탑이 다 무너져 버렸네요.

주르륵 길게 늘어 놓은 도미노와 동글 동글 붙어 놓은 비누방울, 접시 위에 올려 놓은 말랑 말랑 젤리까지, 아이들이 한 번 “콕!”하고 찢어 보고 싶은 물건들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책을 “콕!” 하고 찢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여러 가지 의태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아라이 히로유키

1974 년 도쿄 출생.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그림책 작가 겸 디자이너이다. 작품으로는 '때굴때굴 뽕!', '냉장고', '블록 대작전', '유령과 숨바꼭질' 등 다수가 있다.